



마약근절 굳은다짐
건강사회 이룩된다



“마약퇴치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지난 5월 25일 2차 이사회에서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인사, 새로 구성된 국회 여러 의원님, 유관 기관장님과 만나고 의견을 들으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중요하고, 정부와 국민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2015년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년 7월)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수가 2015년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27%가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재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늘려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불법마약류 퇴치 사업은 한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주도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또한 이런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유관기관 및 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마약퇴치운동본부 9기 이사진은 정부가 요구한 기관 개선 방안에 따라 80여 명에서 28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원님들과 회원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첫째,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에 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불법마약퇴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크게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욱 증대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여러 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전과 달리 임원님들의 숫자가 대폭 감소되었기에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저도 더욱 가까이 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 및 학술토론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물과 법규 및 각종 제도, 그리고 사업수행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퇴치 관련 임원 및 전문가님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사님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로의 체계화를 구축해 마약류 퇴치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약법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시도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외부기관들과 업무협약 및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마약류 퇴치사업도 활성화하고 더욱 전문화 했습니다. 중독재활센터를 다시 개소했고, 검찰청 의뢰 마약류사범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을 대표적인 다이버전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으며, 학교보건교사 직무연수용 교육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활동들을 전국적으로 전개했고 지금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발한 활동은 관계하는 수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